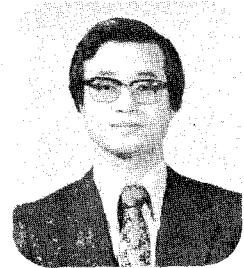




# 이익추구와 안전경영

원 송 대  
(연암축산전문대학)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려는데 제일 큰 목표를 두는 상황에서 양계불황에 대처 하면서 사업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생산비용을 낮추는데 총력을 경주 해야 한다.

필자가 아는 양계장중에서 현재의 비싼사료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란생산비가 남보다 10% 정도 낮은곳도 허다하다. 최저의 시장난가에도 견디어 낼수 있는 생산이야 말로 안전경영의 키포인트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고려할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산성이 높은 계통의 닭을 선택하는 것이야 말로 제일 중요한 일로 낮은 생산비를 달성할 수 있는 제 1보가 된다,

년간 계란 15kg을 생산하는 닭과 18kg 을 생산하는 닭과는 여하한 다른 조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수익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

어떤 계통이 가장 우수한 것인가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광고선전의 신빙성 확인선택등 그 가늠하는 척도는 각자의 경험이나 노력에 따르며 양

계인들은 품종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나) 성능이 우수한 닭이라도 그 능력을 최대로 뽑아 내려면 그 닭에 알맞는 관리지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배우고 들은사항, 기술문헌의 연구, 다른 모범양계장 견학등을 통해서 배우면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반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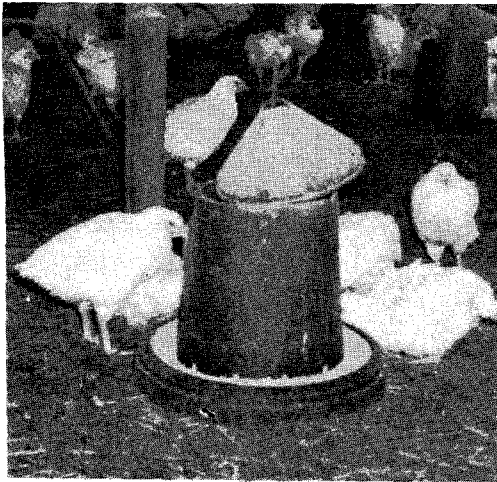
그러나 실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병아리, 기계, 사료, 작업인들에게 잘못된 원인을 추궁하려 한다.

그러나 원인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가 끝까지 규명하지 않으면 다음 개선할 기회를 잃고 발전할 수 없다.

필자가 아는 양계가 중에는 수 많은 실패를 한 후 닭의 능력을 최고로 이끌어낸 양계가 적지 않다.

(예 1) 산란계는 2주령까지 성장표준 이상으로 자라게 되면 150일 육성기간중 마리당 약1~1.5kg의 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 즉 닭의 장의 발육은 2주령에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다.

닭의 장의 길이는 1.2m~1.8m의 차이를 보인다. 성계시 1.8m의 소화 흡수능력과 1.2m의 그것과는 사료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



△ 닭의 능력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닭에 맞는 관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가 있기 때문이다.

(예 2) 영양 발육기나 성 성숙기는 매우 중요하다. 76일령까지는 영양육성기, 80~150일령까지는 대추성장기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능력 기간을 1개월 또는 2개월 더 연장시킬수 있다.

이것은 닭의 개체 생산비를 10~20% 상쇄시키는 것이다.

높은 산란능력의 개발은 육성기와 성제시기를 통해 영양관리를 통한 사료요구율을 최저를 이룩하면서 지속력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결과로 13개월간 1수당 1일 50g 평균 산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육성과정이 닭의 경제능력 발휘에 미치는 영향은 95%로써 육성기간이야말로 산란계의 능력 발휘의 중요 포인트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전반 70일령의 영양 발육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주령까지를 중요한 기간으로 한다. 또 성장기간의 생리에 맞게 하여 백신, 이동, 부리자르기기등 작업을 알맞는 시기를 골라 실시해야 한다.

후기 성숙에 수반하는 근골의 발달을 여하히 조절하는가? 옛부터 애는 작게 낳아 크게 기르라는 말이 있듯이 산란계는 이 시기에 체

구는 적게하면서 난소기능을 완전케 하고 높은 산란성적 달성과 사료요구율을 낮추고 지속력을 늘리며 생존율등을 향상시킬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양계 사업의 사회적의의와 개인의 생활기반으로서의 의의 또는 사회식생활면에서의 공헌과 사업으로 인한 공해등 서로 결과가 상반되는 한계점을 조정해야 하는 원점에서의 파악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양계를 업으로 삼는 양계인 개인생활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면에서의 보다 많은 이윤확보를 노리는것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업이 무척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적자로 도산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다.

현재 물가나 경제흐름을 국제적으로 각국은 각기 허용되는한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사료 가격의 인상추세는 세계 공통인것 같다.

사료 가격의 앙등은 개인은 물론 국가로서도 어쩔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유통가격이 이에 편승하여 일부에서 인상을 더욱 조장하려는 흥제는 당연히 저지 되어야 할것이다.

또 계란가격도 과잉생산으로 하락 또는 폭락되는것을 막기위해 출하조정, 생산조정, 유통기구의 개선등이 이루어 져야한다.

자본주의 사회로서 양계업은 자유업이며 개인의 의사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 양계산업의 경우 농업계통의 양계, 상사단위의 양계, 독자적인 사업 집단양계 등 셋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닮아갈것 같다.

사업보호책은 조직적활동에 크게 좌우되고 사업경영은 개인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경영자 자신이다. 즉 자신의 경영실수를 사료공장이나, 부화장이나, 사회 경기변동에 미룬다고해서 잃어버린 자본은 돌아오지 않는다.